

통합돌봄·공공심야어린이병원…광주 ‘국내 1호’ 정책 전국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근로자 조식 반값·AI 당지기 등 주목
광주다움 통합돌봄·공공심야어린이 병원…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AI당지기’·‘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등 광주시 민선 8기 핵심 사업을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벤치마킹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교육·복지·의료·노동·안전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친 ‘전국 최초’ 혁신적 정책이 모범사례로 꼽혀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는 광주시 혁신 정책은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부터 AI 당지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성폭력 피해자 새출발 응원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광주시의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 노력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자녀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연근무의 새로운 형태로 수원시, 경북도, 전북도 등 타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AI당지기’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시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직원 당직제를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폐지하고 도입한 정책으로 공공기관·비호출적인 야간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선도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촉진한 복지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명·소득·질병 여부와 관

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불린다.

시행 3년차를 맞은 올해는 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발전해 의료, 요양, 주거, 식사, 이동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는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 부모들의 호응이 좋아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저렴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는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밖에 틈새돌봄 시책인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보행 안전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새 출발 응원금’ 사업,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비용 지원사업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는 그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섬의 날 기념식’ 개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8일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6회 섬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천천히 돌아보고 싶은 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 상·하수도 질식 사고 제로화 나선다

특별 안전교육 실시…9월 30일까지 중점 대응 기간 운영

전남도가 최근 상·하수도 내에서 질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제로’(Zero)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8일 시·군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함께해 교육 전문성과 효과성을 더했다.

교육은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수장 및 하수처리

장의 지하구조물 등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질식 등 다양한 위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작업장 유해 요인 관리, 작업장 주변 위험 경고, 작업장 사전 확인 및 안전 장비 비치,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와 출입 인원 점검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전남도는 밀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대응 기간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하수도시설은 지하구조물 등 밀폐공간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해 체계적인 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교육과 중점 대응 기간 운영을 통해 밀폐공간에서 질식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방정가 라운지

최지현 “금타, 재발 방지·피해 보상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대한 금호타이어 측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 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화재 당시 발생한 유독가스는 광주 도심 전역으로 확산됐고,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악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금호타이어는 피해규모와 보상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 2만여건의 피해신고 중 실제 보상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35%(7000여건)에 불과하다”며 “금호타이어는 책임있는 자세로 보상 절차를 재정비하고, 주민대표와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보상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장기 건강영향을 고려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의 필요성과 철저작업의 투명한 공개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기적인 지역민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해접수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연령, 거리, 질환관계 등 피해의 객관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철거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2차 화학물질 노출 등 주민피해를 고려해 공사계획과 절차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 불안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금호타이어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면서 “광주공장의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를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팽창식 구명조끼 신청하세요”

전남도, 10월까지 보급

전남도가 9일 “오는 10월까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52억원의 투입, 선주들을 대상으로 5만여벌의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고체적 고정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 조업 시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팽창식 구명조끼는 기존 고정식 구명조끼와 비교해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은 장점이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제품으로, 목도리형과 벨트형 두 가지다. 선주는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비용 80%를 보조받아, 1개 당 2만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구매를 원하는 선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수협과 어선안전조업국, 시·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해양사고 시 생존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으로 어업인들의 조업 시 편의성 증대와 구명조끼 착용률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우리쌀로 아이 위한 건강한 디저트 만드세요”

광주 농업기술센터, 교육생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 가공식품 활용 교육생을 모집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교육생을 18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이번 교육은 우리 쌀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됐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농업기술센

터 1층 생활문화교육관에서 우리 쌀에 대한 이론 강의, 다양한 가공식품 실습과 가정에서의 활용법 등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회차별로 1기 인절미 구운 찰떡·사블라주법 쿠키 2종, 2기 쌀찜 카스테라 양갱, 3기 무화과크림 치즈 티그레, 크림빵 쿠키 2종, 4기 우리 쌀로 만든 꽃 송편, 5기 당근마들렌·크림치즈프로스팅, 브리제법 쿠키 2종 등을 만든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초·중·고·대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다. 신청은 광주시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교육마당·교육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응복합 지원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
2025

40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